청년 고민듣기로 문 연 미래세대위원회

10월 21일 공식 출범, 토크로 청년불자 소통

대불련과 조계사청년회 청년불자 90여 명 동참 취업 · 대인관계 · 결혼 등 다양한 주제 고민 쏟아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무대에서 3인의 청년멘토와 청년불자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모습.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불교동아리 활동경험 덕분에 불교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좋게 봐주신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업무에 비해 적은 월급인데다 이직 시 경력 인정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포 · 5포세대, 헬조선…. 이 시대 청년들을 표현하는, 그리고 청년들이 표현하는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단어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불교계가 이들의 고민 듣기에 나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0월 21일 저녁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첫 활동으로 청년불자들이 삶에서 갖는 고민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원과 조계사 청년회원 90여 명은 진행자의 사연 소개와 질문에 맞춰 개인 생각을 표현하고, 조언을 들으며 소통했다. 진행은 마음치유학교 지도법사 운성 스님과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 대표, 박지연 대불련 간사가 맡았다.

첫 사연은 결혼한 지 1달 된 청년불자. 신행활동을 함에 있어 무교인 아내의 눈치가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진행자는 대중에게 종교가 같은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은지 물었고 90여 명 중 7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불자임을 숨긴 적이 있다고 밝힌 청년도 30명이 넘었다.

대불련 소속임을 밝힌 한 대학생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누군가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본다. 관계가 괜히 불편해질까봐 단주도 빼고 만난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운성 스님은 "미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쫓아와서 불자들의 사회적 실천이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많이 슬픈 얘기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종교를 숨겨야하는 것으로 위상이 떨어졌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에 대해서는 "신행생활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내와 데이트 하듯이 아름다운 사찰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 가볍게 불교와 가까워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다음 사연은 불교계 첫 직장에 대한 취업 고민이었다. 여기서는 많은 청년불자들이 돈보다는 근로시간 등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계사 청년회원은 "연봉이 적더라도 근무시간 짧은 게 좋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운성 스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감수만 된다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며 "다만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주로 결핍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열 대표 역시 "고민상담을 하다보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결국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삶의 기준이 부정확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식은 단순히 사업목표나 계획에 대한 설명보다는 젊은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계가 그동안 청년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청년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한 참가자는 "불교는 어른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많다. 그만큼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고, 불교도 청년에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막 출범했지만 미래세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불교계가 청년들에게도 눈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범식에서 위원장 심산 스님은 "청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적극 살피고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면서 "청춘이라는 단어에 미래와 희망을 넣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 미래세대위원 가섭?일감?수안스님, 이경수 대불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주 KCRP 대표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불자개그맨 양상국 씨가 영상으로 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년포교 활성화 위해 지도법사 매뉴얼 체계화

대불련, 10월 19일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간담회 개최


10월 19일 열린 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 간담회 모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수, 이하 대불련)가 대학생 및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도법사 시스템을 정비한다. 지도법사 교육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불련은 10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본공 스님을 비롯해 사무국장 효석 스님, 인하대 지도법사 혜한 스님 등 지도법사 스님들과 대불련 중앙사무국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련 관계자들은 각 학교 불교동아리의 법회 방법 및 불교동아리 운영방법, 법회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 및 어려운점을 공유했다.

특히 지도법사가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소임을 맡는 것이 대불련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는데 입장을 모았다.

한양대 지도법사이기도 한 본공 스님은 "학기 초 불교학생회 법우들과 지도법사가 캠퍼스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효과가 있다. 오랜 기간 지도법사 경험이 쌓이면 학생 상담 사례 모음 등 노하우가 생긴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지대 지도법사 지홍 스님도 "전임 지도법사 스님이 오랫동안 함께해 학생들이 이미 불교적 소양이 갖춰져 있다. 지속적이로 체계적인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불련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도법사 교육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 지도법사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의사항과 상담사례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을 위한 법요집도 제작해 불교동아리에 배표하기로 했다.

한편, 대불련은 11월 4일 광주 증심사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열고, 11월 9일 오후6시 서울 고려대 4 · 18 소극장에서 서울지부 연합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11월 11일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차기 대불련 중앙회장 후보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30 불교 이끌 '봉은사 108청년' 발대

10월 21일, 봉은사 청년회 '108청년' 발대식 개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 108명이 모였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봉은사 청년회 108청년'(이하 108청년) 발대식을 10월 21일 법왕루에서 개최했다. 20~30대 청년불자 108명으로 구성되는 '108청년'은 청년불자 집중 양성을 위해 법회, 행사, 템플스테이, 봉사 등 다양한 사중 활동을 펼친다.

기존 봉은사 청년회는 1982년 출범해 성지순례, 3000배 철야정진, 부처님오신날 등 사중 행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수행 등 폭넓게 활동해왔다. 특히 신입회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별도로 운영, 새 법우가 불교와 사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 임원조직을 갖추고 활성화된 청년회를 꾸려왔다.

봉은사는 이번 '108청년' 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불자 포교의 중흥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주지 원명 스님은 "많은 청년불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봉은사가 활력 있고 젊어진 듯한 기분"이라면서 "신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도, 불교와 절을 위해서도 아니다. 불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에 의해 봉은사가 더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 청년회원' 표창도 이뤄졌다. 심재남 청년회장은 "108청년은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자 모였으나 각자 청년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다르다"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바람을 충족시키 위해 여러 신행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령별 소통 기회 지속적으로 넓히자"

서울노인복지센터 10월 25일 노인 권익 포럼

실버세대와 청년세대의 소통을 주제로 한 서울노인영화제가 10월 25일 대한극장에서 제10회 대회를 개막했다. 개막에 앞서 24일에는 서울노인영화제 의미를 살피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 권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발제를 통해 "영화에 필요한 기술력보다 공감과 인식 개선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세대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연령 통합을 이끌고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윤아영 박사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면서 글과 미디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목소리를 담고 사회와 소통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참여까지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의 확장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노인영화제는 대한극장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서울극장과 피카디리 등 종로구 내 5개 상영관에서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시로 한마음된 아시아 장애인 불자들

보리수아래 10월 25일 북콘서트 '눈길'

아시아 불자장애 시인들의 공동시집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불자장애인모임 '보리수아래'는 10월 25일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빵 한 개와 칼 한자루'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시집에는 한국과 미얀마 장애인 불자들이 불심으로 장애를 극복한 내용이 시로 담겨있다. 보리수아래 회원 시인 5명과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 시인 7명이 각각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번역해 총 37편을 실었다.

북콘서트에서는 보리수아래 지도법사 법인 스님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시낭송, 수화노래, 니르바니 오케스트라 음성공양, 피아노 병창 등이 진행됐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불자장애인들의 작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시아 불교국가 내 불자장애인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이번 북콘서트를 만련했다"며 "향후 불교국가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대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2동 637 / 전화 02)919-0211 팩스 02)919-0216
www.bongguksa.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